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8~2/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맛지마니까야(2)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대승기신론해동소혈맥기(1)	원효/공파스님 역해	운주사	7	자타카전서:부처님본생이야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3	부적의비밀:기원과상징의문화	자현/김재일 그림	모과나무	8	맛지마니까야(3)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청정도론(1)	붓다고사/대림	초기불전연구원	9	디가니까야(1)길게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예수님은법받은미륵존여래불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10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책세상

"선이란 교법 실천하는 것…진면목 찾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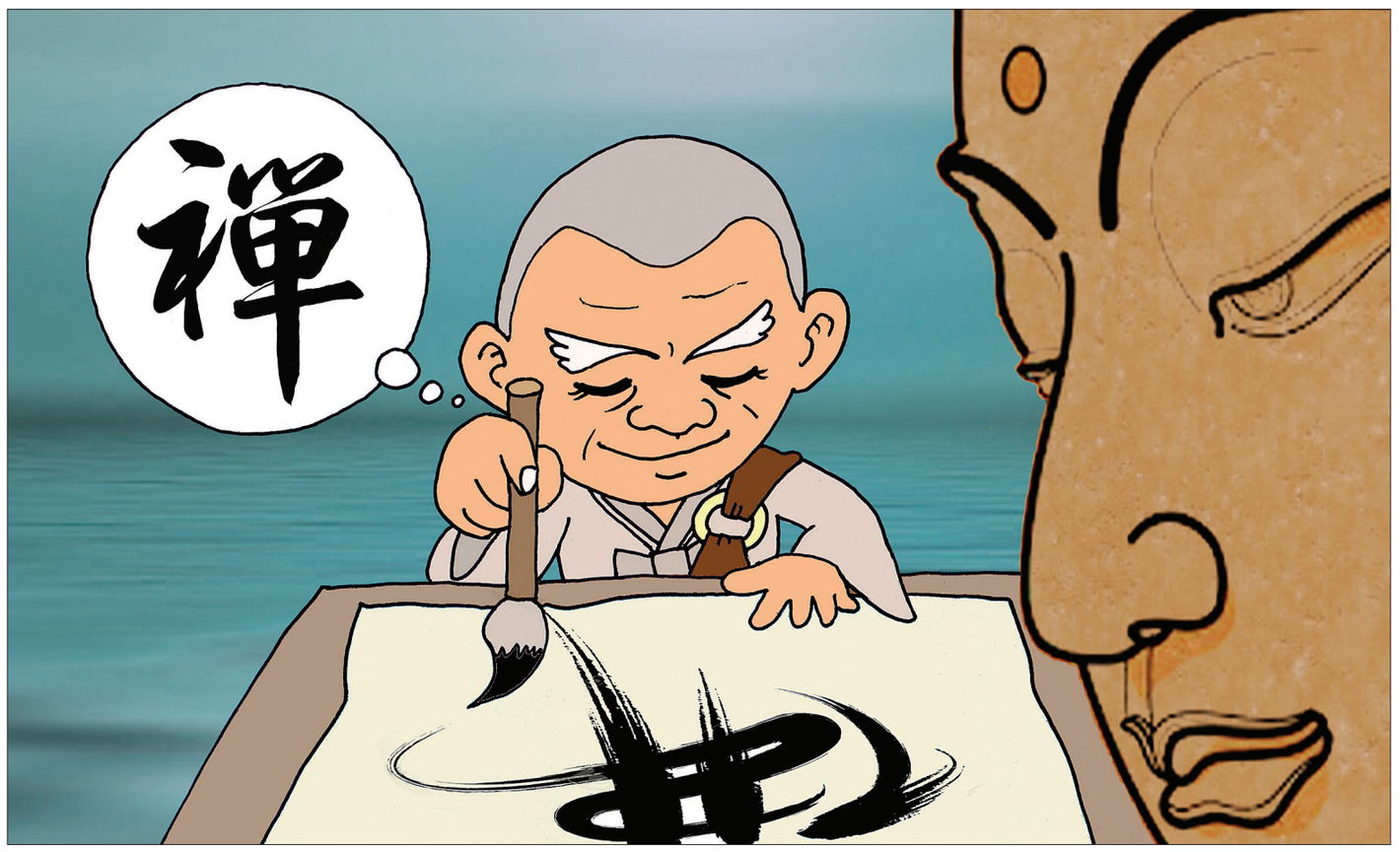
선의 발자취를 따라서
현견 지음
담앤북스 펴냄/2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달마시대 이전부터 청대에 걸친 禪 문화의 역사를 산책해 '눈길'

선종과 관련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적 바탕으로 인물 선법 내용 등 핵심내용 조명한 것이 주요한 주제

한국선종사서 조명안한 선법과 인물 각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 상황 하에 선종 명맥 잇기 위해 겪은 변천사와 변화 과정 밝혀 신선한 반응 일으켜



현대불교신문 현견 스님 연재 DB 삽화

중국 선종은 당나라 중엽부터 말엽까지 선학의 황금시대를 이끌며 걸출한 인물들을 다수 배출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선법을 전한 인물로 달마대사를 말하지만, 사실 중국에서 달마 이전에 이미 선법이 전해져서 유행하였다. 그 근간은 모두 인도불교를 기초로 하고 있다.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에 유입돼 중국식으로 재탄생한 수행법이 바로 중국선이며 곧 조사선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선수행은 주로 임제종 수행법인 간화선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불교는 당대 선종과 임제종에 관한 선법 및 인물 자료는 풍부한 편이지만, 기타 제 종파에 대한 자료는 매우 희소하다. 그래서 저자는 중국 북경대서 연구 공부한 귀중한 결과물을 본지인 〈현대불교신문〉에 2년간 연재했다. 당시 주제는 선종에 관련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물, 선법, 내용 등을 골자로 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선종사서 다루지 않던 선법과 인물을 소개하는가 하면, 각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 상황 하에 선종 명맥을 잇기 위해 어떤 변천사를 겪어 왔으며,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밝혀 당시 독자들로 부터 신선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래서 원래의 1년 연재 약속은 자연스레 2년으로 늘어났다.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이 책은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불타사 주지로 정진중인 현견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에 2년간 격주로 선종에 관련된 사상, 인물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기고했던 내용을 엮은 것이다.

그렇다면 선(禪)이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저자 현견 스님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선이란 부처님 교법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다. 또한 선이란 문사수(聞思修) 가운데서 수(修)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자 본래 진면목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곧 회광반조(回光返照)해서 자신을 해탈하고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들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청정해서 순진무구하며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공적(空寂)의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선은 곧 밖으로는 모든 경계가 끊어지고, 안으로는 적정(寂靜)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 '공적지심(空寂之心) 영지불매(靈知不昧)'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책을 쓰면서 저자는 글의 근거와 출처를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저자는 "글 한 줄 쓰더라도 출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했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구절을 쓸때면 대장경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정확히 밝히고자 노력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한다.

현견 스님은 중국 북경대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석학이다. 그만큼 중국불교에 관해 다양한 안목으로 중국 선법의 형성에서부터 시대별로 활발히 활동한 선승과 그 중심 사상 등 다방면에서 깊이 연구한 결과물이 이 한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견 스님과 함께 달마 이전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선문화의 역사를 산책하다 보면 비로소 선불교의 진면목은 물론 자신의 본래 참모습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자 현견 스님은?

1982년 해인사 삼선암으로 출가해 중국 북경대학교 석사와 동 대학교 박사(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동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강사를 지냈고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를 맡고 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불타사 주지로 정진하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선(禪)은 중국선종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다. 인도에서 부처님께서도 선수행을 하셨고 이 선수행을 통해서 성불하셨다. 이 외에도 인도의 외도들도 선수행을 통해서 본인들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했다. 인도불교가 중국에 유입되어 경전 번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마침내는 교상판석을 통해 경전의 심천을 가려서 그것을 근거로학파 및 종파가 성립되기도 했다." 〈p.19〉

"염불선법은 초창기 중국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방편 중 하나였다. 특히 염불삼매는 대소승의 수행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또 각각의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염불삼매 수행법은 중국 초창기의 선종은 물론이거니와 후대 선종에도 많은 영향을 주면서 선종의 역사와 함께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p.48?

"중국의 선종 하면 제일 먼저 달마대사의 커다란 눈과 덥수룩한 수염, 소림면벽이 떠오른다. 특히 한국에서는 달마 이전의 중국선법 및 단체에 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도, 많이 연구가 된 것도 없다. 하지만 중국불교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선종이 태동하기 전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초기에 여러 종류의 선법과 선승단체가 지속적으로 유행하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도 했다."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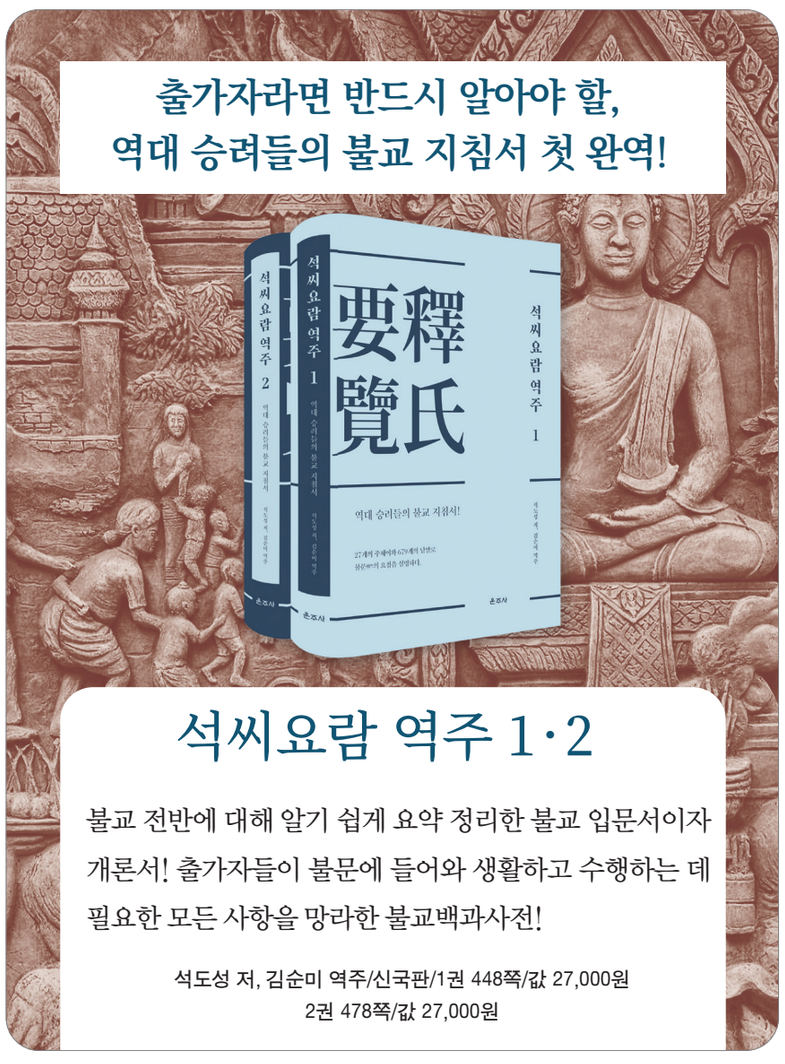
"중국선종사에서 육조혜능선사(638~713)의 출현에는 선종의 중국화 내지 탈인도선법의 요인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특히 혜능스님의 출현은 〈능가경〉에서 〈금강경〉으로 자리 전환 혹은 위치 전환의 분기점이라고도 한다." 〈p.140〉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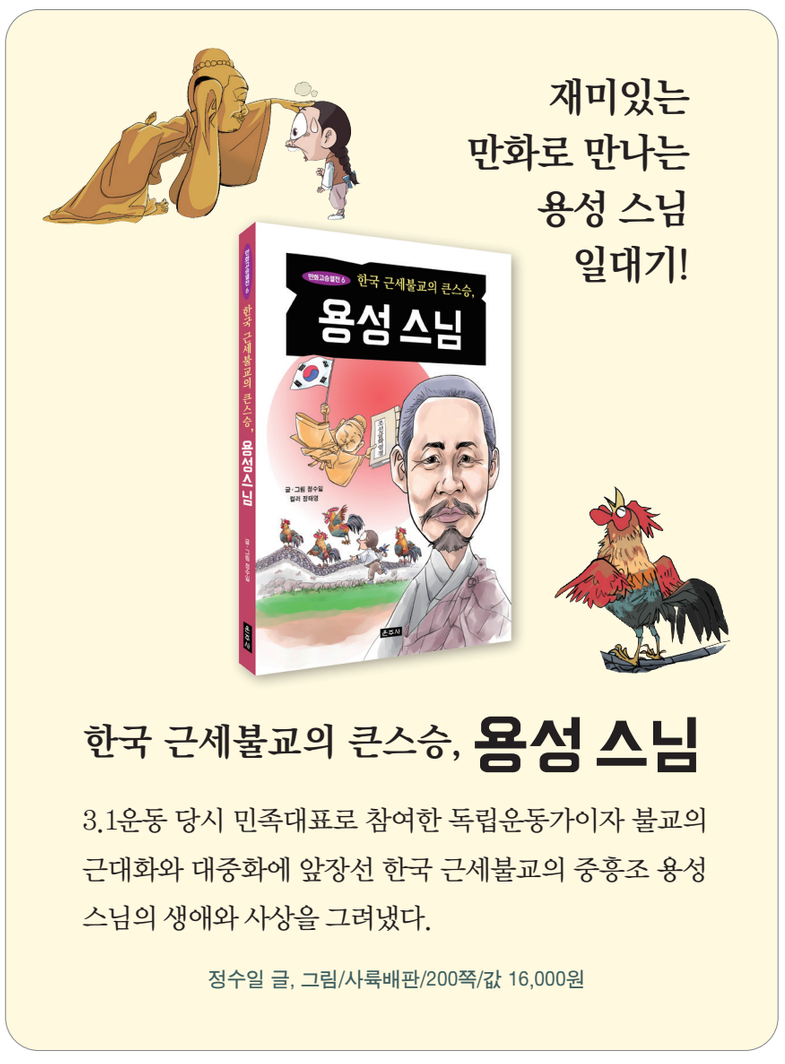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